북한 서해 축 개발 - 경제 공동체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

- 건설경협의밑그림그린'10·4 정상선언,' 구체화된합의내용에기대감증폭-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월 4일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도출한합의사항을담은'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에서명했다. 경제협력사업 활성화를 비롯한 총 8개항을 담은 이 선언문은 지난 6·15 공동 선언 이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남북 관계, 특히 경제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견인할건설협력사업의밑그림을그렸다는데 가장큰의미를둘수있다.

남북 경제 협력의 밑그림 그려

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남북 정상은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 사항을 담은 5항에서 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과 공동의번영을위해 경제 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有無相通: 있는것과없는것을서로융통함)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했다.

이를위해경제협력에따른투자를장려하고기반시설확충과자원개발을적극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특수성에맞게각종우대조건과특혜를상호간에우선적으로부여하기로했다. 또한, 해주지역과 인근 해역을 포괄하는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를 개발하고,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 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이용등도적극추진하기로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이른 시일안에완공하고2단계개발에착수하는 한편 문산 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을 시작하고통행·통신·통관문제를비롯한제도적 보장 조치들도 조속히 완비하기로 하였다. 개성 신의주 철도와 개성 평양 고속도로를 공동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도 협의하여추진하기로했다.

건설업계는지난 10월4일에발표된 ' 남북관계발전과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에 큰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보다 세부적인 실천 방안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이와함께안변과남포에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및 보건 의료, 환경 보호 등여러분야의협력사업을진행하기로했다. 더불어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했다.

이밖에남과북은백두산관광을실시하고 이를 위한 백두산 서울 직항로를 개설하며 2008년북경올림픽경기대회에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최초로 이용해 참가하기로 했다. 또한, 자연 재해를 비롯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동포애와인도주의, 상부상조원칙에따라적극협력하기로했다.

한편, 남과북은이러한선언의실질적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 총리회담을 올 11월 중서울에서 갖는데에도 합의했다. 그리고 남과북은남북관계발전을위해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건설업, 신규사업 및 사업 다각화 기회

이러한10·4 선언에대해전문가들과건설업계는6·15 공동선언보다진일보된것이라데입을모으며, 평화보장과경제, 사회, 문화교류등에서포괄적으로이뤄진이번합의가남북경협을더욱활성화시킬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상준국토연구원연구위원은“ 먼저, 이번합의는단기적인과제보다는중장기적인쌍방향협력과제를도출한데큰의미가있다 ”며“ 특히 경협 사업 추진 주체를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격상한 것은경협사업이초기 단계를넘어진일보한체계로접어든것을뜻한다 ”고평가했다. 이어 그는“ 선언문에 담긴 경제 특구와 철도 및고속도로개보수등각종건설협력사업은 기초 조사와 추진 일정 협의 등 준비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분히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 말한 뒤“ 6자회담에따른핵불능화가이행되고북미 관계도 정상화되어야 대북 투자가 활성화될것 ”이라고전망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도“ 그동안대북건설경협의가장큰문제는대북정보가 불투명한 데다 리스크 헤지 방안이 전무하다는 데 있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정부간 협력이 강화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도해법을찾을것으로기대된다 ”고밝혔다. 그는 또“ 정상 선언의 성공 여부는 후속 작업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이 군사적 요충지인 해주를 개방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며“ 건설업계 입장에서는신규 사업및사업다각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대부분의 사업이 공사를시행하고골재나자원채굴권등을대물로받는민자사업으로진행될공산이큰만큼그룹계열사소속및대북건설시장진출경험이있는대형 건설업체가수혜를입을가능성이높다 ”고전망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남북정상간합의의진정한의의는선언문에담긴일부사업들이중요한것이아니라남북간평화정착을통한장기적인남북 경협 확대에 더 의미를 둬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간평화노력과6자회담을통한핵불능화조치들은결국북핵리스크의 감소로 이어져 신인도 측면에서 양국이모두 수혜를 입을것 ”이라며“ 정치적 안정⇒경제적 안정⇒남북간 경제 협력 확대라는선순환구조로이어져건설업계로서는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덧붙였다.

남북 경협의 동반 성장 추진 개념

구체적 재원 확보 및 실천 방안 뒤따라야

건설업계는 이번 남북 정상간 합의에 기대를 걸면서도 보다 세부적인 실천 방안과 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

GS건설 관계자는“ 우선 개성공업지구 2단계개발착수, 개성 신의주철도및개성 평양 고속도로개보수, 안변과남포의조선 협력 단지 건설 등 구체적인 남북 경제 협력 내용에 기대를 건다 ”며“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세부적인실천방안이있어야한다 ”고말했다.

현대건설관계자도“ 남북경제협력은모두가윈윈할수있는사업들로건설뿐만아니라전산업계가환영할만한일이지만북한의 낙후된 SOC에 소요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이를 전담할 기구 및 인력, 북한SOC 개발과투자를위한특별법제정등 정부의 지원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합의가중장기적인과제를중심으로도출됐지만단기적으로는한반도서해축을중심으로한대규모SOC 건설사업에대한기대감이높다.

정형곤 대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간건설경협, 특히북한의핵심경제력이 집중된 서해 축에 도로와 철도, 항만, 공단 등SOC 사업협력에대한합의는남한근대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처럼 남북경협증진과 남북경제공동체형성에획기적으로기여하는등큰의미를가진다 ”고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서해 축 거점인 평양과 신의주, 남포, 해주 등을 경유하는 고속도로 개보수사업과항만및공단개발사업은단기실현가능성이높을뿐만아니라중장기 경협증진에 크게기여할남북간 핵심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면서“ 북한의 서해 축 SOC 건설은 북한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형국인남한 경제의대륙진출활성화에기여할것 ”이라고전망했다.

또한,“ 이번10·4선언은남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위한 경협확대의실천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업에 합의하는 등 한반도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정상회담의결과로평가된다 ”면서“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3통(通)과투자보장등제도적이고도정책적인 인프라구축이이번정상회담의소득이다 ”고덧붙였다.

채희찬
일간건설신문경제부기자